10.18219/ddmh..125.202403.117

雨坪 黃麟老의 『八衍文』에 대하여

金原經*

Ⅰ. 머리말
Ⅱ. 黃麟老의 생애와 저서
Ⅲ. 『八衍文』 문헌학적 검토
Ⅳ. 『八衍文』 저술 의도 고찰
Ⅴ. 맺음말

• 국문초록

雨坪 黃麟老(1785~1830)는 18~19세기 상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영남학파 남인이다. 立齋 鄭宗魯의 문인이고, 嶺南 三文章 중 한 사람이며, 문장은 六經古文과 百家를 바탕에 두었다. 저서로 『雨坪遺稿』와 『팔연문』이 있다.

『팔연문』은 황인로가 1829년에 자신의 저술과 삶 가운데 '衍文'이라 생각하는 것 8종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아들 黃萬善이 眉叟篆으로 쓴 정사본을 다루었다. 연문 8종은 「東箴」, 「景嶽」, 「愚頌」, 姓銜을 析字한 것, 篆書로 필사한 것, 「八衍文序」, '팔연문'이라 제목 붙인 것, 본인이다. 황인로에게 연문이란 자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저 군더더기가 아닌 '천성, 가문, 취미' 등으로 모두 황인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주제어 : 雨坪, 黃麟老, 雨坪遺稿, 八衍文, 衍文, 嶺南三文章

* 성균관대 한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Ⅰ. 머리말

雨坪 黃麟老(1785~1830)는 영남 남인으로 18~19세기에 살았던 문장가이자 시인이다. 尙州에서 태어난 그는 영남학파 문인으로, 鄭宗魯의 문하에서 退溪 李滉, 眉叟 許穆의 사상과 문학을 이어받았다. 그는 嶺南 지역을 중심으로 李秉遠·金養楨·李敬儒·李源祚·柳尋春·姜世綸·姜世揆·姜世晭·鄭象履·鄭象觀·黃獻老·黃巖老·黃蟠老·黃源善[1] 등의 문인들과 함께 남인 문단의 문학 활동에 기여하였다. 그가 남긴 저서로 문집『雨坪遺稿』,『八衍文』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그를 보다 본격적으로 고찰해보려는 첫 시도이다.

우평 황인로는 권태을[2]에 의해 처음 조명되었다. 그를 19세기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문장가로 주목하였으며, 같은 장수 황씨 문인인 白下 黃蟠老[3]와 상주 지역에서 쌍벽을 이룬 시인으로 소개하고, 시 일부를 소개했다. 방현아[4]는 황인로를 芝園 姜世綸(1761~1842)[5]이 교유한 남인 문단 중 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강세륜과 주고받은 시 일부를 소개했다. 이처럼 우평 황인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문학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편린적으로 소개된 것 외에는 직접적인 연구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 아래 우평 황인로의 생애, 학맥, 교유, 저서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가문, 천성, 아취 등이 드러난『팔연문』을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책은 황인로가 1829년에 자신의 저술과 삶

---

1) 雨坪 黃麟老와 교유한 인물은 '권태을,『尙州漢文學』, 尙州文化院, 2001, 558면'과 '문집『雨坪遺稿』'를 참고하였다.

2) 권태을,『尙州漢文學』, 尙州文化院, 2001, 558~563면.

3) 白下 黃蟠老의 생몰년은 1766년(영조 42)~1840년(헌종 6)이다. 본관은 長水, 자는 叔璜, 호는 白下이다. 경상북도 尙州郡 中牟에서 태어났고, 부친은 黃啓熙(1727~1785)이며, 3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1789년(정조 13) 식년시 생원 2등 14위로 합격하였다. 진사시 합격 후 부모상을 당하자, 더 이상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다. 황인로와 12촌 형제 사이이다.

4) 방현아,「芝園 姜世綸의 詩文學 硏究-「漢京雜詠」과『北征錄』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20.

5) 芝園 姜世綸 : 생몰년은 1761년(영조 37)~1842년(헌종 8)이다. 본관은 晉州, 자는 文擧, 호는 芝園 혹은 芝圃이다. 입재 정종로의 문인이며, 1783년(정조 7)에 문과에 급제하여 규장각 講製文臣에 뽑혔다. 병조 참판을 역임했다.

가운데 '衍文'으로 생각하는 것 8종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그는 연문에 대해 자신만의 또 다른 의미를 내세웠고, 일생에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정체성을 드러냈다. 황인로라는 인물의 기초 연구에 있어서 한층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저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팔연문』을 문헌학적으로 검토하고, 구성과 내용의 특징을 살펴 그의 『팔연문』 저술 의도를 '연문'이라는 의미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黃麟老의 생애와 저서

黃麟老의 본관은 長水, 자는 文吉, 호는 雨坪이다. 부친 子翼 黃敬熙(1747~1818)와 어머니 星山 裵氏 사이 1남 1녀 중 아들로, 1785년(정조 8) 경북 상주 中牟(현재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부근)에서 태어났다. 8세에 이미 필력이 遒勁하였고, 『少微史』를 읽었다. 12세에 족형 立齋 鄭宗魯에게 『周易』, 『中庸』 등을 배웠고, 20세에는 大山 李象靖 선생에게 나아가 주자의 居敬窮理說을 들었다. 26세에 비로소 입재 정종로의 문하에 들어갔으며, 37세에는 玉洞書院 齋任을 지냈다. 46세의 나이로 졸하였다.[6]

황인로가 거주했던 상주는 장수 황씨가 15세기 중반부터 세거하던 곳이었다. 세종대 정승을 지낸 黃喜의 次子 黃保身이 처향 상주로 낙향하여 부친 황희의 영정을 자신의 '백화당'에 모시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6세기에는 黃惇이 白玉洞影堂을 건립하여 황희의 영정을 봉안함으로써 향촌 주도 세력의 가문으로 권위를 구축하게 된다.[7] 백옥동영당은 18세기 옥동서원으로 승원 되어 상주 남인 세력을 결집시키고, 장수 황씨의 문학 활동 중심지로서 역할 한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상주 지역은 안동과 함께 퇴계 학맥의 본고장이다. 황인로의 부친 황경희는 小退溪 대산 이상정의 문인이었고, 우평 황인로는 입재 정종로의 문

6) 李敦禹, 『肯庵先生文集』 권9, 「雨坪子黃公行狀」(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도서번호 미기재); 黃礪老, 『白下先生文集』 권8, 「雨坪黃君壙誌」, 한국문집총간 속 109, 629면; 許傳, 『性齋集』 권22, 「居士黃雨坪墓碣銘」, 한국문집총간 308~309, 450면 등 참조.

7) 김순한, 「조선후기 상주 白玉洞影堂의 운영과 陞院」,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참조.

인이었다. 황인로는 後生子 黃萬善[8]과 黃蘭善[9]이 있었는데, 이중 둘째 아들 황난선은 定齋 柳致明의 문하에 나아갔다.[10] 이렇게 우평 황인로의 집안은 모두 영남학파 문인으로서 퇴계 학통의 사상과 학문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평 황인로가 상주 문단에서 활동하던 19세기 초는 靑利(지금의 상주시 청리면)의 晉州 姜氏를 중심으로 한 시인들의 왕성한 활동과 모동의 장수 황씨가 尙山 문단을 대변하던 시기였다.[11] 그 배경은 18세기 말 상주 중모의 옥동서원이 추향과 사액을 거치면서 그 주도권을 장악하여 장수 황씨가 이를 중심으로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있다.[12] 황인로도 이 시기(1822년)에 옥동서원에서 재임을 거쳤고, 상주 白華山 일대에서 상주 문단의 시인들과 시회를 가지는 등 문학 활동을 이어갔는데, 주로 不換亭,[13] 藏菴,[14] 淸越樓[15] 등에서 시회가 이루어졌다. 이곳들은 모두 선대부터

---

8) 黃萬善의 생몰년은 1819년(순조 19)~1883년(고종 20)이다. 자는 濟父이고, 벼슬은 하지 않았다. 『謾錄』 10책이 있다고 전하지만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

9) 黃蘭善의 생몰년은 1825년(순조 25)~1908년(순종 2)이다. 자는 同輔, 호는 是廬이다. 저서로 『是廬集』이 있다.

10) 황인로는 10년간 자식이 없어 黃耆老의 아들 黃宇鉉(1800~1833)을 얻었고, 후생자로 두 아들 黃萬善(1819~1883)과 黃蘭善(1825~1908)을 얻었다(許傳, 『性齋集』, 「居士黃雨坪墓碣銘」 참조).

11) 권태을 앞의 2001 책, 558~563면 참조.

12) 송석현, 「조선시대 상주지역 서원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참조.

13) 不換亭은 대산 이상정의 「不換亭記」에 의하면 백화산에 흐르는 牟水(현재의 中牟川) 동쪽에 있었으며 황인로의 7대조 黃紐의 아들 黃德柔(1596~1659)가 노년에 의탁하던 곳이었다. 황덕유는 젊어서부터 고상한 취지가 있고, 과거 공부를 달가워하지 않아서 천거로 받은 관직에서 사직하였다고 하는데, 옛사람의 釣臺詩 중에 "三公 자리와 바꾸지 않으리.(三公不換此江山)"라는 시구에서 '不換'이라는 이름을 취하여 편액을 삼고, 소요하며 유유자적하는 취향을 부쳤다고 하였다.(李象靖, 『大山集』 44권, 「不換亭記」, "亭舊在牟水之東, 故郡守黃公所退閒而寄老焉者也. 公少有高趣, 不屑擧業, 偶以薦剡膺縣寄, 未幾而解紱賦歸, 卽其所居之東而卜是丘焉. 鳳凰之水, 灣遶於其下, 而白華獻壽諸峯, 呈奇攢秀於前, 於是取古人釣臺詩三公不換之句, 以侈其顔而寓夫徜徉自適之趣.)

14) 藏菴은 황인로의 「藏庵重修記」와 「景嶽詩序」에 의하면 황인로의 고조부 白華齋 黃翼再(1682~1747)가 지은 것으로 이때부터 집안 대대로 관리하고 시회를 일삼던 곳이었다. 황익재는 이곳에서 占卦와 占辭를 살폈다고 하는데, 『주역』의 '聖人이 이로써 마음을 깨끗이 씻고 물러나 은밀한 곳에 감춰두었다.(聖人以此洗心, 退藏於密)'의 의미를 암자의 이름 '藏菴'과 암자의 돌 '洗心石'에 반영하였다.

15) 淸越樓는 玉洞書院에 있는 門樓이다. 옥동서원은 翼成公 黃喜를 제향한 곳으로, 입재의 「玉洞書院堂齋及水石命名記」에 따르면 '옥의 소리가 맑고 드날려 길다는 뜻(玉聲淸越以長之義)'을 취하여

이어진 장수 황씨 문중 시회의 장이었다. 이중 옥동서원의 청월루는 대산 이상정, 입재 정종로 등의 詩作 공간이기도 해서 경상도 안동과 상주의 학맥이 연결되는 구심점 역할도 하였다. 황인로는 비록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포의로 살았지만, 스승이었던 입재는 그의 文鋒이 영남 문단에 드물다고 평한 바 있을 정도로 시재에 뛰어났다.[16] 그리고 12촌 형제이자 함께 정종로의 문하에 있었던 황반로는 황인로의 「壙銘」에서 이렇게 평가한 바 있다.

> 그의 문장은 반드시 인의의 영역에 출입을 했고, 타고난 것처럼 필력이 뛰어났기에 영남의 선비들이 君과 鄭叔顒, 姜啓好를 三文章이라 지목하였다. 삼문장 중에 두 사람인 정숙옹과 강계호는 기풍이 고원하여 세속의 사람과 같지 않기를 주장하였는데, 우평만큼은 '문맥이 매끄럽고 글자가 적절할 것(文從字順)'을 주장했다.[17]

영남의 선비들은 황인로를 당시 영남의 三文章 중 하나로 평가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머지 두 인물은 황인로와 같은 입재의 문하생이자, 황반로를 포함하여 가장 막역했던 벗들이다. 정숙옹은 鄭象觀[18]으로 입재 정종로의 아들이다. 강계호는 姜世闓[19]으로 강세륜의 육촌 동생이다. 이들은 서로 시회를 갖기도 하고, 서화 골동을 애호하는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있어 함께 글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황반로는 이 셋 중 황인로가 특히 문장이 뛰어나다고 평가한 것이다. 대산 이상정의 현손이자, 아들 황난선과 같은 문하생이었던 肯庵 李敦禹[20]도 황인로의 문장에 대해 언급

'청월루'라고 명명한 것이다.

16) 鄭宗魯,『立齋集』권1,「贈黃文吉麟老」, 한국문집총간 253~254, 344면, "文鋒決得絳河高, 南國騷壇鮮爾曹, 好把芳年趨正軌, 動由經術是眞豪, 昏衢揭日騰騏步, 巨舶張風湊海濤, 我欲取酣無下物, 擬將君筆佐觴醪"

17) 黃儡老,『白下先生文集』권8,「雨坪黃君壙誌」, 한국문집총간 속 109, 629면, "其爲文, 必出入仁義, 其富若生蓄. 嶺之士, 目君與鄭叔顒, 姜啓好, 爲三文章. 之二人氣甚高, 主不與同俗人, 君主文從字順."

18) 鄭象觀의 생몰년은 1776년(영조 52)~1820년(순조 20)이다. 본관은 晉州, 자가 叔顒이고, 부친은 입재 정종로이다. 損齋 南漢朝(1744~1809)의 문인이며, 벼슬은 하지 않았다. 문집으로『谷口園記』가 있다.

19) 姜世闓의 생몰년은 1780(정조 4)~1835(헌종 원년)이다. 본관은 晉州, 자는 啓好, 호는 過庵이다. 姜必章(1722~1798)의 아들이며, 상주 鳳臺에 거주하였다. 1803년(순조3)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참봉을 지냈고, 저서로『過庵集』이 있다.

한 바 있는데, 그의 「行狀」에서 “일찍이 문장에 힘씀에, 六經을 근본에 두어 기본을 세웠고, 諸家를 참고하여 뜻을 넓혔다.”[21] 라 하였다. 이를 통해 황인로의 문장이 六經古文과 百家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의 저서를 살펴보면, 『雨坪遺稿』, 『八衍文』 등이 있다. 문집 『우평유고』는 간행된 적이 없고 모두 필사본으로 전하는데, 현재 계명대본, 영남대본, 연세대본과 소장처 미상의 복사본 4종이 확인된다.

이 중 필사자가 명확한 것은 연세대 본 『우평유고』(00040302667, 00040302119)이다. 표제는 ‘先府君遺稿’이며, 권수제는 우평유고이다. 본래 10권 5책과 부록 1책(총 11권)인데, 1-2권과 7-8권 2책만 소장 되어 있다. 권1의 목록 뒤에 ‘長水黃麟老文吉甫著’라 쓰고, 글자마다 8글자씩 篆書로 析字한 기록이 있다. 바로 다음 장엔 황인로의 둘째 아들 황난선의 「識」가 있다.[22] 이 기록에 의하면 본래 첫째 아들 황만선이 庚辰年(1880)에 먼저 부친의 원고를 모아 분류 편집하여 총 10권으로 엮었고, 석자한 기록은 본래 10권의 끝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둘째 아들 난선이 20년 뒤인 庚子年(1900)에 다시 유고의 차례를 바로잡았으며, 후인들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1권 첫머리에 부친의 석자 기록을 옮겼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우평유고는 둘째 아들 난선의 필사본이며, 본래 첫째 아들 만선의 필사본 『우평유고』 10권도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책만이 현전하지만 전체 목록이 있어 수록된 작품명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계명대 본(A171285~7)은 확인 가능한 현전 『우평유고』 중 유일한 완질로 보인다. 표제와 권수제 모두 ‘우평유고’이며 총 3권 3책(天地人 분류)이다. 별도의 기록

---

20) 肯庵 李敦禹의 생몰년은 1807(순조 7)~1884(고종 21)이다. 본관은 韓山, 자는 始能, 호는 肯庵이다. 大山 李象靖의 현손이다. 경북 안동 蘇湖里에서 태어났다. 定齋 柳致明의 문인이다. 1850년(철종 1)에 문과에 급제했고, 假注書를 시작으로 1882년(고종 19)에 이조 참판에 이르렀다. 저서로 『肯庵先生文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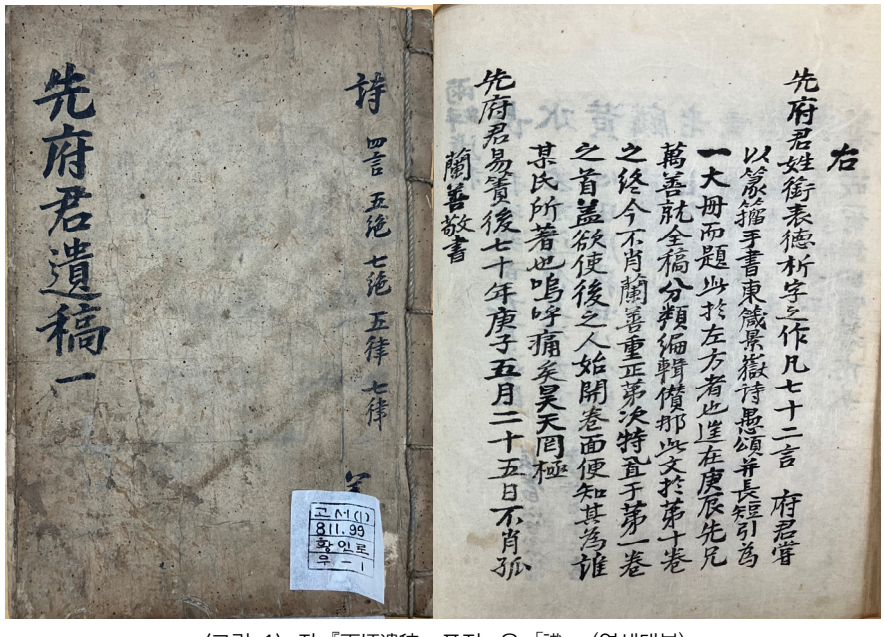
21) 李敦禹, 『肯庵先生文集』, 권9, 「雨坪子黃公行狀」 “嘗肆力於文章, 本之六經, 以立基本, 參之諸家, 以博其趣.”

22) 黃麟老, 『雨坪遺稿』 권1, 「前識」(연세대학교 소장, 이하 생략) “右先府君姓銜表德析字之作, 凡七十二言. 府君嘗以篆籀手書東箴、景嶽詩、愚訟幷長短引爲一大冊, 而題此於左方者也. ○在庚辰, 先兄萬善就全稿分類編輯, 儹那此文於第十卷之終. 今不肖蘭善重正第次, 特○于第一卷之首, 蓋欲使後之人始開卷面, 便知其爲誰某氏所著也. 嗚呼! 痛矣! 昊天罔極. 先府君易簀後七十年庚子五月二十五日, 不肖孤蘭善敬書.”

이 없어 필사자를 알 수 없으며, 목록이 없으나 연세대본과 차례가 거의 비슷하다. 낙장이 있거나, 일부 글은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이 있다. 장서인 6방이 찍혀 있는데 판독 불가이다.

영남대 본(Y0772605~8)은 표제는 '雨坪集'이고, 권수제는 '雨坪子文集'이다. 가장 正書한 본이며, 총 8권 4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책마다 2권씩 목차가 있다. 예천의 味山 朴得寧의 후손인 文谷 朴庭魯의 성명인과 자호인이 매 권의 첫 면과 끝 면에 찍혀있다. 권4부터 권8까지는 권호가 적혀있지 않거나 섞여 쓰여있어 미정고본임을 알 수 있다. 차례는 연세대 본『우평유고』와 거의 같다. 별도의 기록이 없어 필사자를 알 수 없다.

소장처 미상의 복사본은 필사자를 알 수 없으나 유일하게 목록 전체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계선이 그어진 인찰지에 필사를 했는데, 필사자가 중간에 여러 차례 바뀐 것으로 보인다. 권1-5는 시, 권6은 편지, 권7은 잡저, 서, 기, 발, 상량문, 고유문 등이며, 권9는 제문과 애사, 권10은 邱墓文, 행장이다. 지금은 권1-4까지만 남아 있다.



〈그림 1〉 좌『雨坪遺稿』표지, 우「識」. (연세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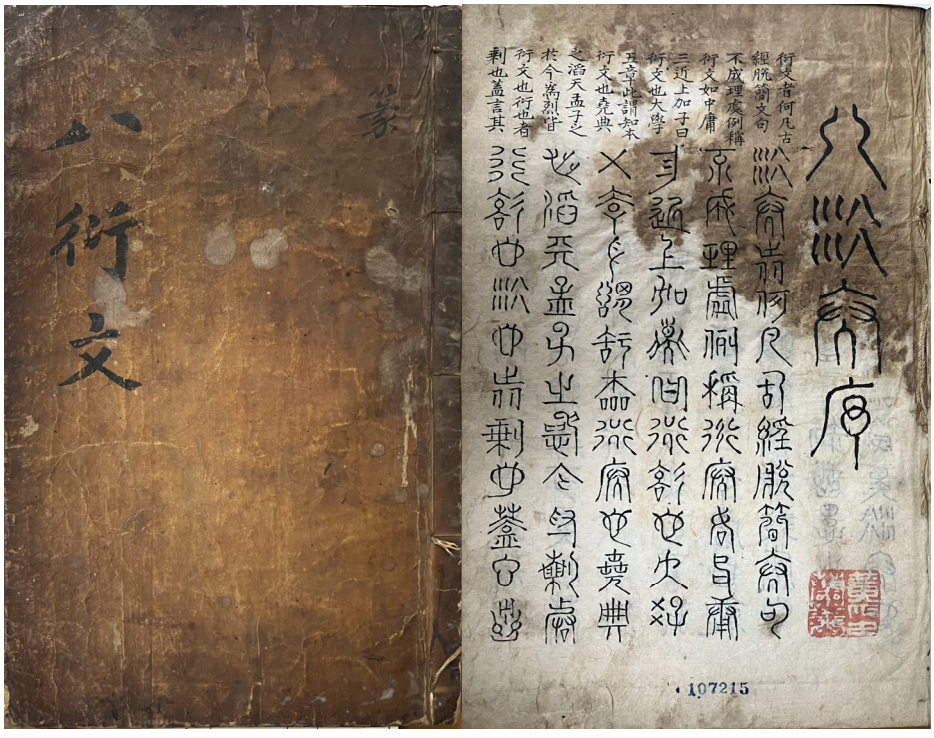
Ⅲ.『八衍文』문헌학적 검토

『八衍文』의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문헌학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팔연문』은 한 책의 필사본으로 현재까지 발견되거나 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은 총 3종이다.

① 우평 황인로가 金振興의『篆大學』서체를 참고하여 쓴 수고본(「八衍文序」에 근거)
② 첫째 아들 황만선이 부친의 수고본을 보고 眉叟篆으로 쓴 정사본(계명대학교 소장, 등록번호:A107215)
③ 李完熙의 필사본(실물 미확인)[23]

황인로의 수고본과 이완희의 필사본은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황만선의 정사본만 전한다. 황인로의 수고본은 1829년, 황만선의 정사본은 1853년에 필사되었다. 여기에서 검토할 책은 황만선의 정사본으로 계명대에 소장되어 있다.(이하, '계명대본') 계명대본을 살펴보면 표제는 '八衍文'이고, 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篆'이라 쓰여 있다. 오침안정법으로 엮었고, 필사본 1책(크기: 30.0×19.5cm)이다. 내제가 없고, 광곽과 계선이 없으며, 목차도 없다.

23) 李完熙의 필사본도 1책(장수 확인 불가, 크기: 28.8×45.3cm.)이다. 표제는 古篆體의 '八衍文'이다. 권두 내지 상단에 '李完熙書'라는 주기가 있고, '雨坪'이 大字로 쓰여 있다. 내제는 없고, 행자수는 불분명하다. 「팔연문서」는 해서로 썼고, 서문을 제외한 본문은 모두 전서로 쓰여 있는데, 글자마다 오른쪽에 해서체로 부기하되 小字로 썼다. 구성은 계명대본과 거의 같으나 별지는 없고, 권말에 전서체로 필사한 미수 허목의 「陟州東海碑文」이 추가되었다(한옥션 경매번호 : 14-011을 참조하여 작성했다).



〈그림 2〉 좌 『팔연문』 표지, 우 첫면.(계명대본)

내지 첫 면은 우평 황인로가 지은 서문 「八衍文序」로 시작한다. 서문 아래에는 황인로의 둘째 아들 황난선의 성명인 '黃蘭善印'이 있다. 본문의 구성은 「팔연문서」-「東箴」-「景岳詩」-「愚頌」-「析字」(長水黃麟老文吉甫著)-別紙-「後識」 순이다. 본문의 행자 수는 일정하지 않은데, 1면당 6~8행이고, 매행 8~11자이다. 본문의 원문은 眉叟篆으로 썼고, 書眉에 원문을 釋字하여 楷書體로 썼다. 내지 마지막 면에는 行草書로 쓴 별지가 붙어 있다. 필사자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지만, 이것 역시 황만선이 쓴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 미수 허목 선생은 「東海頌」의 끝에서 스스로 姓과 諱를 자서했는데, 허모의 '허'자는 '무'자와 '색'자로 이루어졌으니 매우 기이하다. 후에 『사기』의 「鄭世家」를 보건대, 허령공의 '허'자는 '鄦'로 썼는데, '鄦'의 음은 '허'라고 하였다.

대체로 篆法은 이해할 수 없다. 眉翁께서 일찍이 「愚山二十景」 여러 작품을 전서로 썼는데 오직 「鼇柱石」의 '鼇'자는 고법에서 볼 수 없다고 여겨 〈전서로〉 쓰지 않았다. 『설문해자』의 敖자와 黽자를 살펴보건대 두 글자 다 전서체로 구분되어 있으니, 합하여 '鼇'자를 이루면 어찌 안될 것이 있겠는가. 미옹께서 굳이 피한 것은 어째서인가?

김진흥의 『篆大學』은 한 글자지만 거듭 나오면 비록 열 번 나와도 모두 각기 다르게 썼다. 예컨대 所, 爲, 者, 其, 欲, 先, 后, 能 등의 글자가 혹 세로로 쓰고 혹 비스듬하며, 혹 복잡하고 혹 생략되어 쓸 때마다 변주를 주니 어찌 이 모든 것이 고법에서 의도해서 전한 것이겠는가? 또 예컨대, '詩云'의 '云'자가 재차 나오면 나누어 한번은 가로로 한번은 세로로 썼다. '有土'의 '土'자가 재차 보이는 곳은 획을 나누어 또한 한번은 세로로 한번은 가로로 썼으며, '十目'의 '十'자는 본래 '십'자로 썼다가 '十手'의 '十'자는 또 '拾'자로 썼으니, 또한 옛 전서체가 반드시 이와 같은지 잘 모르겠다.

미수 선생께서는 일찍이 『시경』의 「長發」장을 전서로 썼는데 '爲下國綴旒'구절의 '旒'는 비워두고 쓰지 않고 말하기를 "'方+𠂆'자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武王載旆'구절의 '旆'자는 굳이 쓰면서 말하기를 "𠂤은 전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川流不息의 류를 나눈 것은 『篆千字』에서도 살필 수 있다. 어찌 方+𠂆과 巾으로 구성된 '旆'자를 쓸 수 있는데, 方+𠂆과 流으로 구성된 '旒'자는 반드시 쓸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면 본래 그 뜻이 있었던 것인가? 들으니 『전해심경』 8권이 上枝(칠곡)의 지암 이동항 댁에 있으니, 후에 빌려서 고증해야겠다.[24]

별지의 내용은 '미수 허목의 遺墨', '金振興[25]의 『篆大學』'[26], '古文'의 字體를

24) 황인로, 『팔연문』, 별지, "眉叟許先生「東海頌」末自署姓諱, 而許某之許字從無從色, 甚可異焉. 後觀『史記·鄭世家』, 許靈公之許字作鄦, 鄦音許云. 大抵篆法不可曉. 眉翁賞篆「愚山二十景」諸品, 而獨「鼇柱石」之鼇字, 以爲不見於古法, 不書之. 按『說文』敖字、黽字, 俱有篆體分, 附合而成鼇, 何不可之有? 而眉翁必固避之何哉. 金振興篆大學, 凡一字而疊見者, 雖十出皆各書之. 如所字、爲字、者字、其字、欲先后能等字, 或縱或斜, 或繁或省, 每書而每變, 豈此皆劃傳於古法耶? 又如詩云之云字再見, 分一直一撗. 有土之土字再見, 分亦一直一撗. 十目之十, 固書以十, 而十手之十, 又以拾字書之, 亦未知其古之爲篆者必如是也. 眉叟嘗篆詩之長發章, 而爲下國綴旒之旒, 空而不書, 若曰爲方+𠂆之難分. 武王載旆之旆, 固書之矣. 若曰爲𠂤之無據, 分川流不息之流, 『篆千字』亦可攷矣. 豈從方+𠂆從巾之旆字可書, 而從方+𠂆從流之旒字必不可書者, 抑固有其義歟? 聞篆海心經八卷, 在上枝李遲菴宅後, 當借攷."

25) 金振興은 1621년(광해군 13)생이다. 본관은 善山이고, 字는 興之, 혹은 待而, 號는 松溪이다.

서로 비교하고, 그 차이점에 대한 의문과 고찰이 주를 이룬다. 황인로의 수고본은 김진흥의 『전대학』을 참고했고, 황만선은 이 부친의 수고본을 미수전으로 필사했기에, 필사 과정에서 생긴 전서체에 대한 의문과 고문 자체를 통한 고증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글의 마지막에는 해결하지 못한 의문을 칠곡에 거주하는 遲菴 李東沆[27] 가문에게 『篆海心經』[28]을 빌려 해소하겠다는 기록이 있다. 이동항은 대산 이상정의 문인으로 적어도 황인로의 부친 때부터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전서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이동항은 8세부터 최서림(崔瑞林)[29]에게 전서를 배웠고, 고문에 대해서는 미수 허목이 이후 1인 자라 평가될 정도였다.[30] 『전해심경』은 마찬가지로 김진흥이 편찬한 것으로, 韻字 혹은 각 韻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전서로 기록해 놓은 사전적 기능을 지닌 책이다. 『전대학』은 김진흥이 비교적 앞선 시기(1661년, 40세)에 전서를 학습하며 지은 책이고, 『전해심경』은 김진흥이 전서로 일가를 이룬 뒤(1675년, 54세), 앞선 저작들보다 전서체를 다루는 범위나 질적인 면에서 상승된 마지막 저서이다. 황만선은 부친의 『팔연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전대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러한 『전해심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1654년(효종 5) 譯科에 급제했고, 글씨를 잘 써 篆文學官에 등용되었으며, 관직은 護軍에 이르렀다. 문집이 전하진 않는다. 呂爾徵에게 篆書을 익혔고, 명나라의 사신 朱之蕃으로부터 『篆訣』을 얻어 연구하였다. 『篆大學』, 『東銘篆帖』, 『禮部韻玉篇篆書』, 『篆海心鏡』, 『松溪各體篆帖』 등을 남겼다.

26) 『篆大學』은 김진흥이 『大學章句大全』를 저본으로 38체의 篆書로 쓴 책이다. 章과 傳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전서체로 쓰여져 있다. 宋時烈(1607~1689), 李端夏(1625~1689), 金萬基(1633~1687), 呂聖齊(1625~1691)의 서발문이 있고, 1665년(현종 6)에 간행되었다.

27) 遲菴 李東沆의 생몰년은 1736(영조 12)~1804(순조 4)이다. 본관은 廣州, 자는 聖哉, 호는 遲庵이다. 경상도 漆谷 石田에 살았다. 고조는 대사헌을 다섯 차례나 지낸 李元祿(1688~?), 증조는 생원인 李顯命이다. 본생 증조는 병조좌랑을 지낸 李基命, 조부는 李世珩(1685~1761), 부친은 李恒中(1708~1758)이다. 과거는 하지 않았다.

28) 『篆海心經』은 김진흥이 玉筋體의 전서를 四聲별로 쓰고 각 글자 아래에 楷書를 써 넣은 책이다. 全5卷2冊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75년(숙종 1) 여이징의 아들 여성제가 함경감사로 있으면서 간행한 것으로 金萬基의 서문이 있다. 金萬基(1633~1687)의 「序文」이 있다.

29) 관련 기록이 없다. 전서에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30) 李東沆, 『遲菴先生文集』, 「行略」(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44-가27), "八世時, 安山崔公瑞林來訪. 崔公以篆書名世, 見而悅之, 持紙請書, 崔公欣然書給. 府君常倣其體而習之, 蓋其書癖自兒時已然. …… 工於古文, 晩而成家. 其奇古健倔之法, 眉翁以後第一人也."

〈그림 3〉 좌『팔연문』별지, 우「후지」.(계명대본)

계명대본『팔연문』의 별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영남 지역 남인의 미수전 수용과 조선 후기 전서 학습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황인로의 문집에는 인장, 서화 골동과 관련된 글들이 다수 있어 그 애호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황만선의 별지를 통해 이러한 취향을 아들이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권말 끝 면에는 마찬가지로 황만선의「후지」가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미수전으로 쓰였다. 계축년(昭陽赤奮若, 1853)에 황인로의 첫째 아들 황만선이 동생 황난선에게 준다는 내용이 쓰여있다.[31]「후지」하단에 황만선의 관향, 성명, 자호를 적

은 '長水黃萬善濟父印' 印影이 있다. 「후지」와 황만선의 인영, 첫면의 황난선의 인영은 계명대본 『팔연문』의 필사자가 첫째 아들 황만선이며, 둘째 아들 황난선이 소유했던 책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Ⅳ. 『八衍文』 저술 의도 고찰

『八衍文』은 황인로가 1829년에 자신의 저술과 삶 가운데 '衍文'으로 생각하는 것 8종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대체로 연문은 글 가운데 쓸데없이 붙은 '군더더기 글귀'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저자가 자신의 글에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친 문장'(예컨대,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조금 의미를 넓게 보면 '부연하여 설명하다'(예컨대, 경전의 뜻을 풀이하는 책의 제목에 '衍義'를 붙인 것) 등의 의미가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황인로가 말하는 '연문'의 의미가 무엇이며, 말년에 이러한 방식으로 책을 저술하게 된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그의 「서문」을 통해 살펴본다.

> 衍文이란 무엇인가? 옛 경전에서 脫簡되어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곳을 으레 '연문'이라 부른다. 예컨대 『中庸』의 '三近' 위에 '子曰'을 붙인 것이 연문이며, 『大學』 5장의 '此謂知本'은 연문이고, 『書經』 「堯典」의 '滔天'과 『孟子』의 '於今爲烈'이 모두 연문이다. '衍'이라는 것은 나머지(剩)이니 없어도 된다는 말이다. 내 평생 저서 중에 그다지 이치를 이루는 것이 없으니 비록 없더라도 괜찮다. 어느 것인들 연문이 아니겠는가.
>
> 예컨대 「東箴」은 단지 周興嗣의 고사[32]를 이용했을 뿐이고, 警語라고 할만한 것이 없으니 연문이다. 「景嶽」 17장은 늘 스스로 면려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어느 겨를에 남을 면려하겠는가. 그러니 연문이다. 「愚頌」은 소싯적 일일 뿐이다. 어리석음을 따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따졌으니 진실로 망령되다. 그러니

31) 황인로, 『팔연문』, 「後識」, "昭陽赤奮若, 夏之長男萬善敬書, ○○○○○○, 贈弟蘭善."

32) 周興嗣가 지은 『千字文』의 체제를 말한다. 250句로 된 四言古詩로 총 1000자이다. 황인로의 「東箴」도 같은 체제이다.

연문이다. 글에 서문을 짓는 것은 모두 본문의 내용이 서를 지을 만하기 때문인데, 지금 본문이 이미 연문이니, 서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大說이든 小說이든 모두 연문이다. 朱夫子께서 『參同契考異』에 서문을 쓸 때, 일찍이 성과 휘를 고쳐서 '鄒訢'이라 쓴 것은 그 이름을 숨긴 것이다. 지금 내가 姓과 卿을 析字하여 이름을 숨긴 것도 매한가지이니 얼마나 번거로운가. 또한 연문이다. 일찍이 내가 지은 시문은 모두 금세에 쓰기에 합당치 않은 헛고생이니, 지금 세상에 늘 사용하지 않는 우활한 법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움직이는 지렁이나 메마른 덩굴처럼 망령되이 金振興의 篆法을 따라 썼으나, 결국엔 비슷하지도 않으니 또한 연문이 아니겠는가. 무릇 연문은 연문이라고 하면 되지 또 어찌 구구하게 수록하여 굳이 '연문'이라는 글자를 써서 제목을 삼았는가? 이 또한 연문 중에 연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긴요하지 않은 일에 심력을 쏟는 것을 보면 늘 웃으면서 '衍文人'이라고 한다. 箴, 詩, 頌, 序, 성과 휘를 석자한 것, 이 책을 전서로 쓴 것, 책을 만든 것은 요컨대 모두 없어도 되는 것들이다. 없어도 되는 것을 보고서 마치 없으면 안되는 것을 본 것처럼 여기니 그 사람은 '연문'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八衍文'이라고 하였다.

아! 세상에 없어도 되는 것은 진실로 연문이다. 그러나 연문을 어찌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蓍策의 수는 나머지에서 일어나고, 대학의 뜻도 나머지에서 밝혀지니, 육경의 연문을 모두 보존하고 산삭하지 않은 것은 전문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천하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 또한 연문이라고 생각한다. 己丑年(1829) 重陽節에 雨坪子 쓰다.[33]

33) 황인로, 『팔연문』, 「八衍文序」, "衍文者何? 凡古經脫簡文句不成理處, 例稱衍文. 如中庸三近上加子曰, 衍文也. 大學五章, 此謂知本, 衍文也. 堯典之滔天, 孟子之於今爲烈, 皆衍文也. 衍也者, 剩也, 盖言其無亦可也. 雨坪子一生著書, 無甚成理, 雖無之可矣, 何莫非衍文哉? 如東箴之作, 只用周興嗣古事而已, 無可警語, 衍文也. 景嶽十七章, 當自勉之不暇, 何暇勉人哉, 衍文也. 愚頌少時事耳. 知其愚之不可訟而訟之, 誠妄矣. 衍文也. 文之有序, 皆爲其本文之可序者, 而今本之已衍, 序於何有? 其大說小說皆衍也. 朱夫子之序參同契也, 賞改其姓諱而書鄒訢者, 隱其名也. 今姓卿析字隱名則同, 而何煩也? 亦衍文也. 嘗窃以爲所著詩文旣皆今世不合用之枉功, 則宜其書之亦當以今世不恒用之迂法, 於是走蚓枯藤, 妄效金振興篆法, 而竟未能或似焉, 斯不亦衍文哉. 夫衍文者, 衍文之可矣. 又安用區區收錄, 强立衍文字題目哉? 此又衍文之衍文也. 今之人見有沒緊要費心力者, 輒笑而爲衍文人. 夫箴也, 詩也, 頌也, 序也, 名析字也, 篆也, 卷也, 要之皆可無也. 視其可無, 如視其不可無, 此其人非衍文耶? 故謂之八衍文. 嗚呼! 世之可無者固衍文, 然衍文亦豈可少之哉. 蓍策之數起於衍, 大學之義明於衍, 六經之衍文皆存而不刪者, 爲其輔全文也. 愚則以爲天下不可無者, 亦衍文也. 己丑, 重陽, 雨坪子書."

황인로는 서문 처음에서는 연문의 의미를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말미에서는 '全文을 보충해주는 것이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황인로에게 연문은 '주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무엇인가를 온전히 하기 위해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것'이 된다. 우선 그가 선정한 연문을 나열해보면, '①「東箴」, ②「景嶽」, ③「愚頌」, ④자신의 성과 이름을 파자한 것, ⑤『팔연문』을 전서로 필사한 것, ⑥「팔연문서」를 지은 것, ⑦'팔연문'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⑧황인로 자기 자신'이다. 「동잠」, 「경악」, 「우송」은 자신의 저술 중에 가려 뽑은 것이다. 세 작품 모두 문집 우평유고에 실려 있는데, 제목만 쓰고 본문을 싣지 않은 채 '見八衍文'이라 써 놓은 본도 있다.[34] 그리고 본문 외에 각각의 序文을 별도로 지었는데, 「우송」만 본문을 먼저 짓고 후에 서문을 지었다. 나머지는 과거 자신의 저술이 아니라 『팔연문』이라는 책을 편찬하는 과정 가운데 지은 글, 여러 행위, 그리고 본인까지 포함시켰다. 결국 이 8종이 황인로에게는 연문이 되는 것인데, 특히 과거의 저술 가운데 가려 뽑은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각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 8종의 연문이 가지는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우선 앞의 세 글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동잠」은 표면적으로 周興嗣의 천자문 형식인 250구 4언을 활용했을 뿐이고, 警語라고 할만한 것이 없어 연문이라고 「팔연문서」에서 밝혔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處士로서 갖는 태도와 뜻을 담고 있다.

> 「東箴」은 내가 지은 것이다. 周興嗣體를 따르되,[35] 글자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니, 모두 일천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넓지만 우리 동방은 元氣이고, 세대는 오래되었지만 현재는 태평성대며, 생명체는 지극히 많지만 내 몸 가장 신령스러우니, 진실로 만나기 어려운 세 가지 행운을 만난 것이다. 응당 이러한 때는 눈과 귀를 밝히고, 체력을 기르고, 현명한 임금이 다스릴 때 나도 요순시대처럼 도야하고 주조하며, 공자와 맹자를 연원으로 하는 것이 곧 스스로 기약해야 할 바인데, 어찌 낙담하고 실의에 빠져서 이렇게 지내는가. 대체로 일찍이 위아래로 알기를 꾀하고, 두루 잘 관찰해야 하는데, 교만하고 나

34) 소장처 미상의 복사본 『우평유고』가 이에 해당한다.

35) 여기에서 말하는 周興嗣體는 周興嗣가 지은 『千字文』의 체제를 말한다. 250句로 된 四言古詩로 총 1000자이다. 황인로의 「東箴」도 같은 체제이다.

> 쁜 자는 즉각 화가 이르고, 겸손하고 현철한 자는 덕택이 무궁하니, 하늘의 이치가 밝고 밝지 않은가. 천하에서 지극히 험한 것은 世道요, 지키기 어려운 것은 人心이요, 헤아릴 수 없는 것은 天命이다. 군자는 무엇을 믿어야 위태롭고 두렵지 않단 말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초야에 살고 있는 것은 神人이 나에게 삼가 조용히 고요함을 지키면 천수를 누릴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다. 인하여 생각해보니, 군주를 보좌하고, 치국의 본체를 논할 것은 세상에 절로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내가 오히려 무엇을 하겠는가. 다만 금단을 먹고 도복을 입으면서 신명을 攝養하여 위로는 壽域의 여러 신선들과 벗하고, 아래로는 세상과 상관없이 擊壤歌를 부르는 백성이 된다면 또한 나의 삶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감흥이 있어 東箴을 짓는다.[36]

이 글은 「동잠」의 서문이다. 서문과 글 모두 1825년에 지은 것이다. 황인로는 평생 포의로 살았지만, 젊은 시절엔 태평한 시대에 동방에서 태어난 선비로서 마땅히 군자처럼 학문에 뜻을 두며, 관직에 나아가 군주를 보좌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낙담한다. 다만 군주를 보좌하고 치국의 본체를 논해야 하는 알맞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재야에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처사로서 경계해야 할 것을 箴의 형식을 빌려 쓴 것이다. 이러한 처사로서의 황인로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일화를 『우평유고』의 「石篆印說贈姜啓好」라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 일부를 살펴보려 한다.

> 강계호가 '農广病傖'이라는 호를 이 印面에 篆字로 새기고는 나에게 인장을 주었는데, 나는 곧 印背에 내 字와 姓을 새겼다. 내 처음 공부할 적에 주제넘게 명예를 얻고 영달해지려는 뜻이 있었으나 세상을 살아가며 누차 실패하고 곤란을 겪게 되어서는 농사야말로 진실로 내가 처해야 할 것임을 알았으니, 호가

36) 황인로, 『팔연문』, 「東箴序」 "東箴者, 雨坪居士黃麟老之所作也, 蓋效周興嗣體, 禁用疊字, 凡一千言. 麟老以爲四海廣矣, 而吾東其元氣也; 歷代遠矣, 而今日乃泰運也; 群生至衆矣, 而吾身爲之最靈, 誠不易遇之三幸也. 是宜聰明膂力, 翱翔明時, 陶鑄乎虞唐, 淵源乎洙泗, 乃其所自期者, 而何落托乃爾也? 蓋嘗上下圖乘, 縱觀方輿, 驕桀者禍不旋踵, 謙哲者澤流無窮, 天道非昭昭者歟. 天下至險者, 世道也; 難保者, 人心也; 不可測者天命也. 君子何恃而不危恐乎. 林居僻寂, 若有神人告予以愼默守靜, 可引天季者, 因念佐明主, 論治體, 世自有其人焉, 吾尙何爲哉. 惟金丹道服, 攝養神明, 上友乎壽域群仙, 下爲擊壤之逸民, 亦足以不負吾生, 遂感而作東箴."

> 인장을 따라 오는 것이 마땅하다. 계호는 나를 잘 아는구나. 아! 저 上淸과 太和의 지경은 이번 생에서 거의 비슷한 것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 인장은 형상이 그것과 부합하였다. 몸이 이미 깃들 수 없다면 姓과 號를 기탁할 수 있음을 외려 다행으로 여긴다. 그저 이로써 자중자애하며, 또 계호와 이 인장을 새기는 것처럼 서로 보탬이 되기를 약속할 뿐이다.[37]

황인로는 36세(1811년)에 '農庵病傖'이라는 별호가 새겨진 인장을 강세은에게 받았다. 강세은은 앞서 살펴본 영남 삼문장 중 한 사람이자 황인로의 벗이다. 황인로는 강세은이 자신에게 준 別號印이 자신의 처지를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었으므로 背刻을 통해 자신의 성과 호를 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황인로는 명예를 얻고 영달해지려는 뜻을 과거에 품었지만 초야의 선비로 사는 삶이 자신이 처해야 할 바임을 알았다고 말한다. 또 上淸, 太和의 모습과 닮은 印鈕(인장의 손잡이)가 자신이 과거 꿈꾸었던 삶과 비슷하기에, 성과 호를 새겨 그것에 기탁하는 것으로 과거의 바람을 해소하려 하였다. 그러고는 오히려 자중자애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두 글에서 모두 황인로는 초야의 선비로 지내는 것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처사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마음가짐과 태도 갖추려는 모습이 드러난다. 결국 「동잠」에서 황인로는 '처사 황인로'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景嶽」은 황인로가 「팔연문서」에서 종질 黃浩善[38]과 黃源善[39]을 면려하기 위해 지은 17장의 시인데, 경어라고 할 것이 없어 연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

---

37) 황인로,『우평유고』,「石篆印說贈姜啓好」"姜氏篆農广病傖號於其面, 及歸我, 我乃背刻我字姓. 我始讀書, 妄有題柱志, 及嘗世屢躓而病也, 則明農固我所也, 號隨印來宜矣. 啓好其知我. 夫噫! 彼上淸界、太和域, 此生殊未見髣髴, 而斯印也, 象與之合. 身也, 旣不可棲, 其托姓號已幸矣. 聊以是自珍, 又約與啓好相益, 如琢斯印."

38) 黃浩善의 생몰년은 1785년(정조 9)~1863년(철종 14)이다. 본관은 長水, 자는 宏必, 호는 守窩이다.

39) 黃源善의 생몰년은 1798년(정조 22)~1873년(고종 10)이다. 본관은 長水, 자는 進懋이다. 부친은 黃錫老이고, 외조부는 鄭宗魯이다. 처조부는 南漢朝이다. 어려서 정종로, 황반로, 황인로 등에게서 문장을 익혔다. 南漢皓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황난선과의 교유도 확인된다. 문집으로『藏園集』이 전한다.

나 「경악」의 서문을 살펴보면 장수 황씨가문이 대대로 관리하고, 시회를 가졌던 藏庵,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문을 살펴보자.

> 서설에서 말한다. 이글은 내가 종질 浩善, 原善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 浩善 형제가 藏庵을 보수하다가 그곳에서 휴식하였는데, 그것을 본 자들이 마치 그림 속 선경과 같다고 하였으니, 상주 백화산의 新德 마을에서 거리가 백 보정도 였다.
>
> 옛날 華齋先生께서 스스로 도를 지니고서도 시험해보지 못하여 이 언덕에 터를 잡아 卦象을 살피고 占辭를 완미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일삼았다. 하늘이 진실로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 집을 이름하기를 '藏庵'이라 하였고, 그 암자의 돌을 이름하기를 '洗心石'이라 하였으니, 주역의 의미를 말한 것이다. …… 지금 浩善 형제는 독실하고 깊게 공부함에 남음이 있지만 혹 圭角을 드러내는 뜻이 지나치며, 총기 있고 고풍스러움은 가상히 여길만 하지만, 매번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공부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스스로 자만하여 중책을 맡은 것을 게을리하고 옛날의 습관에 젖어서 안주한다면 이는 한갓 이끼가 아롱진 돌이라고 해서 洗心으로 삼고, 뽕나무와 가래나무가 우거진 것이라 해서 新德으로 삼아서 저 그림 속 선경이 품은 바가 그저 지나가며 숙박하는 하나의 암자가 될 것이 염려되니, 진실한 공부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주역에서 말하기를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을 大業이라고 이르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盛德이라고 이른다."고 하였으니, 간직하는 것으로는 대업을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깨끗이 하는 것으로는 덕을 날로 새롭게 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돌아가신 선생께서 너희 형제에게 남기신 뜻이 대단히 크도다!
>
> 내가 일찍이 「藏庵重修記」를 지어 이 뜻을 경솔히 드러내었으나, 미진한 것이 한스러웠다. 인하여 생각해보니 옛 시인이 형제끼리 권면하도록 「小旻之什」을 지었고, 친구 사이에 우애를 지니도록 「伐木之章」을 지었었다. 그러니 군자가 이 장암에 거처하면서 명칭을 살피고 의미를 생각하며, 읊어서 흥기시킬 것을 생각하는 것이 또한 감발함에 조금 보탬이 될 것이라 여겼다. 이에 부연하여 『시경』의 雅體로 시를 지어 반복하고 늘어놓아서 이 지역을 서술하고, 세대를 기술하고, 이름을 드러내고, 방향을 인도하고, 흥취를 드러냈다. 체제는 비와 흥이며, 의미는 規戒이고, 일은 자신의 수양 공부를 주관하고 심성 공부를 닦은 것이며, 終章에서는 동인들과 기쁘고 화목한 것을 다루었다. 新德으로 서

로 권장하기를 바라니 모두 17장이다.

아! 우리는 이제 늙었으니, 다시 무엇을 공부할 수 있겠는가? 여전히 선배들의 자취가 남아 있고, 산천이 변하지 않았으며, 유택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니, 원컨대, 덕을 쌓고 학업을 닦는 여가에 동지들을 데리고 술 마시며 읊조리고 휘파람 불며 놀면서 선배의 유업을 우러러 사모하고, 잘 살피길 바란다. 그러더라도 암자와 돌의 이름에 무슨 해가 있겠는가? 주역에서 이르기를 "옛 사람의 덕을 받아들이면 길하리라"라고 하였다. 이 또한 장암의 고사이므로 내가 이렇게 글을 남긴다.[40]

「경악」의 서문과 시 모두 1829년 8월 즉, 팔연문을 편찬하기 2달 전에 지은 것이다. 시의 제목 '景嶽'은 바로 상주의 백화산을 말한다. 이곳은 장수 황씨가 15세기부터 세거하였던 상주 중모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다. 장수 황씨가는 대대로 이 백화산 일대에서 시회를 가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藏庵이다. 장암은 본래 황인로의 고조부 黃翼再[41]에 의해 지어진 암자로 서문에 나오는 '華齋先生'을 말한다. 장암은 황익재에 의해 지어진 이후, 장수 황씨에서 대대로 관리하였고, 황인로가 이 글을 지을 때는 종질 황호선과 황원선이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황인로는 앞서 1825년에 「藏庵重修記」를 지어 화재선생의 뜻을 드러냈지만, 미

40) 황인로,『팔연문』,「景嶽詩序」, "雨坪子爲從姪浩善、原善而作也. 浩善兄弟重繕藏庵, 遊息其中, 觀者以爲畫圖仙境, 距其居新德, 蓋數弓也. 昔先華齋先生, 抱道不試, 卜藏玆邱, 惟以觀象玩占、洗濯其心爲事. 當時名公學士, 樂其名山水之遇有道主人, 天固不偶, 遂乃名其庵曰藏, 名其庵之石曰洗心, 盖言易也. …… 今浩善兄弟, 敦詳有餘, 而或多發露圭稜之意; 溫雅可尙, 而每欠澡潔本原之工. 竊恐因此自多, 怠於其大受, 而恬於其舊染, 則是徒以其苔蘚之斑然者爲洗心, 桑梓之翳然者爲新德, 而彼畵境所藏, 亦過宿之一菴矣, 顧不有愧於實工哉! 易曰 : "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 夫藏莫大於富其業, 洗莫貴於新其德. 先先生之遺汝, 其大矣. 雨坪子嘗作庵記, 僭發此義, 然恨未盡也. 因念古之詩人, 兄弟相戒, 有小宛之什; 朋友相樂, 有伐木之章. 君子居是庵也, 思有以顧名思義, 昌之諷詠, 亦感發之一助也. 於是演爲雅體, 反復張皇, 以敍其境, 以陳其世, 以表其名, 以導其方, 以發其趣. 其體則比興, 其義則箴儆, 其事則主藏與洗心, 其亂則同人悅睦. 盖欲以新德相勉也, 凡十七章. 嗚呼! 吾輩今老矣, 復何求哉? 尙有先輩之地, 山川不改, 遺芬未沫(典刑密邇), 願以進修之暇, 携與同志觴詠嘯傲, 景仰周章, 抑何害於庵名與石名哉? 易又曰: "食舊德吉." 蓋此亦藏菴之故事, 故雨坪子云."

41) 黃翼再의 생몰년은 1682년(숙종 8)~1747년(영조 23)이다. 본관은 長水, 자는 再叟, 호는 白華齋이다. 부친은 黃鎭夏이고, 모친은 商山 金震鈇의 딸이다. 1701년(숙종 27)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1728년(영조 4) 通政大夫에 올라 종성부사가 되었다. 뚜렷한 사승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식산 이만부, 성호 이익 등과 교유했다.『華齋集』이 전한다.

진하다고 여겨서 1829년에 다시 「경악」이란 시를 짓고 거기에 서문을 붙였다. 고조부 황익재는 『周易』에서 “성인이 이로써 마음을 깨끗이 씻고 물러나 은밀한 곳에 감춰두었다.(聖人以此洗心, 退藏於密)”[42]라는 뜻을 빌어 암자를 ‘藏庵’, 그리고 암자의 돌을 ‘洗心石’이라 명명했다. 황인로는 이러한 고조부의 뜻을 이어받아 종질 호선과 원선에게 『周易』의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을 大業이라고 이르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盛德이라고 이른다.(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43]는 내용을 빌었다. 그리하여 두 형제에게 학업에 정진하여 그 공부한 것을 간직하고(藏), 덕을 날로 새롭게 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洗心) 바란 것이다.

이제 「경악시」의 형식을 살펴보면 『시경』의 雅體로 지었고, 체제는 비와 흥을 따랐다. 시의 내용은 먼저 장수 황씨가 세거했던 백화산 일대를 묘사했고, 장수 황씨의 세대를 나열하고 이름을 일부 드러냈다. 그리고, 후손을 격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規戒의 의미를 담았다. 『시경』의 「小旻之什」, 「伐木之章」을 염두하여 지은 것으로 終章에서는 동인들과 화목하기를 바랐다.[44]

황인로는 이렇게 호선 형제에게 장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시를 지어 형제가 중책을 맡았음을 각인시키면서도, 마지막에는 동인들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완곡하게 부탁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황인로는 「경악」을 통해 자신의 가문에서

---

42) 「繫辭上傳」, 『周易』.

43) 「繫辭上傳」, 『周易』.

44) 황인로, 『팔연문』, 「景嶽詩」, “巖巖景嶽配天作輔, 原氣之畜雲雨斯普, 其下式廓古新德里, 雲宗卜世允玆緜祉. 昔在中葉有挺華叟, 鮮侔晨葩式是來後, 纘烈有典貽謨有章, 君子百年南斗之光. 維庵有藏北山之陰, 廓其有容窈窕其深, 窿然者石亦洗我心, 醒以鳴濛光颼灑襟. 白雲英英松桂亭亭, 泱兮璧漾崖兮金峥, 脫園孔藏何錫之宏, 於粲群玉帝粹皇英. 裳裳者棣有蔚其芬, 華翁孫子浩君源君, 嗣聞厥緖洵美且寬, 爰淤爰歌聊樂盤桓. 於乎二子誨爾箴言, 不有其藏于何能敦, 筮爾山天職思其永, 蓍卦神明不出于靜. 心何以洗則匪水功, 維慝是絶維滓是瀜, 出王游行恒越惺惺, 神珠匪淪奄觀昭呈. 相厥下民散無容紀, 不思虛納曰賢維已, 欲其旣小又吝革舊, 維其吝革征以中垢. 肆皇爾祖海闊其胸, 疇示周行義問孔崇, 凡民俊藝翕以顒卬, 於顯謙謙四方之綱. 我行其里盤銘洋洋. 我人其室笙詩煌煌, 遺箱燁若不歇爐香, 昌與旨與實沃我腸. 龍蟠于壑有鼈有蜒, 玉山之圃礫之硜硜, 舍曰自裕區厥猥穰, 崑崙太湖胡鉅而荒. 月出皎兮雲或鄣止, 鑑雖昭矣塵或堍止, 彼之薄晦尙求其炯, 矧伊心矣何不日警. 兄弟克邁憲戎皇祖, 皇祖是憲乃新爾德, 退密觀象旣有詒武, 謂余弗信眡此庵石. 陟彼崇丘言采其苓, 瀰之瀏瀏可釣可舲, 東有綠野西有平泉, 曖曖花木載列之芊. 角弓其觩行葦泥泥, 今者不樂日月其逝, 圖書楚楚筵几肆肆, 諸父叔伯綏爰右左. 寬兮蓆兮容佩繹兮, 免首匏葉于胥酵兮, 邁兮軸兮容佩郁兮, 虎尾春氷于胥鬲兮. 春而霞蒸秋而錦爛, 我邀嘉賓載觴載管, 鳳凰于飛其鳴鏘鏘, 庶斯無斁萬有千霜.”

대대로 관리하는 암자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장암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선배들의 유풍을 드러내 그리고 장수 황씨 가문의 정체성을 밝힌 셈이다.

「愚頌」은 황인로가 그저 소싯적 일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역시 내용을 살펴보면 어릴 적 품부 받은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 '愚頌'은 본래 '訟愚'이니, 내가 27세(1810년)에 지은 것으로 '순박하고 어리석음(純愚)'을 품부 받은 것에 상심하여 하늘에 송사한 것이다. 愚山 老先生이 일찍이 그것을 보시고 비판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한퇴지는 궁함을 보내려다가 궁함을 불러들였고, 양자운은 가난을 쫓으려다 도리어 가난해졌다. 그대의 「우송」은 어리석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일 따름이다." 아! 옛날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스스로 송사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송사 또한 할 줄 모르니, 어리석음의 지극함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하늘은 이렇게 판결해주었다. "만 명의 아첨꾼은 한 명의 순우한 사람만 못하니, 너는 어찌 따지느냐? 나는 '愚'라는 본성을 너에게 상으로 준 것이다." 이에 나는 송사를 칭송으로 바꾸었고, 하우下愚를 上愚로 삼았다. 19년 후 기축년(1829년) 중양일에 쓰다.

「우송」은 황인로가 27세의 나이로 지은 것이고, 이 글은 19년 후 『팔연문』을 저술한 그 날. 「우송」에 붙인 서문이다. 황인로는 젊은 시절 '순박하고 어리석은(純愚)' 자신의 본성에 대해 상심하며 하늘에 송사하는데, 愚山 老先生이 그것을 보고 韓愈와 揚雄이 가난을 내쫓으려다 도리어 가난해진 고사[45]를 들어 어리석음이라는 본성을 오히려 편안히 받아들이라 충고해 주었다. 여기에서 우산 노선생은 황인로의 스승 입재 정종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46] 스승 입재에 이어 하늘도 어리석음이라는 본성을 상으로 준 것이라고 판결해주는데, 이는 아마도 그저 '어리석음(愚)'보다는 그 '純愚'함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 이로 인해 황인로는 본래 '송우'였던 제목에서 '송'이란 글자를 訟事의 '訟'에서 稱頌의 '頌'으로 바꾸었으며, '愚'라는 글자의 위치를 '頌'의 위에 두면서 자신이 품부 받은 본성 '愚'를 더욱 높게 여겼다.

---

45) 한퇴지와 양자운의 가난에 대한 예시는 揚雄의 「逐貧賦」와 韓愈의 「送窮文」을 가리킨 것이다.

46) 황인로는 입재의 문하생이었고, 입재 정종로의 거주 지역은 愚山 아래였으며, 정종로의 선조 우복 정경세는 우산 서원에서 독서, 강학한 바 있다.

그리하여 「우송」이 되었다. 결국, 황인로는 여기에서 자신이 품부 받은 본성 '순우'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팔연문』에 실린 기존 황인로의 글 3편이 뜻하는 바는 처사로서의 황인로, 장수 황씨 가문의 정신이 깃든 공간, 황인로가 품부 받은 본성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황인로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각각의 글이라는 점이다.

이제 나머지 연문 5종을 살펴보면, '析字'는 長水黃麟老文吉甫著[47]로 그의 본관, 성과 휘, 자를 차례로 파자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연세대본 『우평유고』의 「지」에서 둘째 아들 황난선이 문집의 저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권말에 있던 '석자'를 1권 첫머리에 옮겼다고 말하였듯이, 저자 '황인로'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일 것이다.

다음으로 '『팔연문』 전체를 김진흥의 전법을 따라 전서로 필사한 것'은 그의 애호, 아취를 드러내는 것이다. 문집 『우평유고』에 서화 골동, 印章 등과 관련하여 애호를 드러낸 글 다수가 보일뿐더러, 이 당시 영남 삼문장 중 나머지 2명인 강세은, 정상관, 그리고 林下 李敬儒의 문인으로 알려진 상주의 서리 朴宗樞[48]까지 書帖 혹은 印譜를 편찬하거나, 전서 혹은 인장 등과 관련한 문헌 기록을 남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49] 게다가 아들 황만선은 부친의 이 애호를 이어받아 허목의 미수전으로 『팔연문』을 필사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보아 황인로는 서화 골동 및 인장과 관련하여 주변과 교유하고 공유할 정도로 그 애호와 아취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지하다시피 18세기 전후로 점차 서화 골동, 인장, 원예 등에 대한 玩物喪志의 구속력이 약화된다. 오히려 조선 후기 문인들의 아취로 여겨져 적극적인 애호의 대상이 되고, 대상에 의미 부여를 하여 그것을 극복하기도 한다.[50] 황인로의

47) 황인로, 『팔연문』, 「析字」, "長, 損非乘奇无首爲良. 水, 左右逢源直披天章. 黃, 心田廣覆入八分張. 麟, 麤擎獨拳繪米舜裳. 老, 上賁有荷下比無傍. 文, 遇享之始陰變爲陽. 吉, 弘圭大呂半低半昂. 甫, 平圃屹立四達靡障. 著, 戒爾斜曲靈蓍虛央."

48) '姜世晃, 『過庵集』 권9, 「書朴宗樞篆章卷」, 京城, 1929.'에 의하면 박종추는 임하 이경유의 문인이며, 당시 상주 관아의 서리를 맡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49) '황인로, 「石篆印說贈姜啓好」, 『우평유고』; 황인로, 「題疣世翁可笑事」, 『우평유고』; 鄭象觀, 「玻瓈篆章贊竝序」, 『谷口園記』, 尙州: 谷口園記刊役所, 1928; 姜世晃, 「書朴宗樞篆章卷」, 『過庵集』'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박철상, 「조선후기 문인들의 인장(印章)에 대한 인식의 일면」, 『한문교육논집』 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김원경, 「문헌자료를 위주

아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며, 이 점은 황인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일 것이다.

‘「팔연문서」를 지은 것’, ‘팔연문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자기 자신’은 결국 스스로 정한 ‘연문’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의 일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연문이 그저 군더더기가 아닌 우평 황인로라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팔연문』 서문에서 황인로가 말한 연문은 ‘무엇인가를 위해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연문 8종은 ‘황인로’라는 한 사람을 온전히 해주는데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글과 행동이다. 황인로는 연문의 의미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을 온전히 해주는 것들로 이 책을 구성한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해보면, 황인로는 말년에 자신을 온전히 해주는 글을 선별하여 직접 책으로 엮으려 했다. 먼저 그의 글 가운데 처사로서의 황인로, 가문, 천성을 나타내는 「동잠」, 「경악」, 「우송」를 취했다. 황인로를 설명하는데 대표되는 글들이다. 자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석자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의 아취 書道 또한 담기 위해 서화와 관련된 글을 수록하는 것이 아닌 직접 전서로 필사하는 것을 택했다. 그리고는 연문이라는 표현을 끌어와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이들을 자신을 온전히 해주는데 필요한 연문으로 지칭했다. 그 역설적인 의미의 효과를 더욱 드러내고자 책으로 엮는 과정의 행동들도 연문으로 삼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황인로를 온전히 해주는『팔연문』으로 成冊 되었다.

보통 문집은 개인 저술의 총망라에 가깝고 후손의 윤색과 편집이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다. 그의 문집은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후손에 의해 전하고 있지만, 황인로가 별도로 이 책을 저술한 것은 ‘연문’이라는 표현을 빌어 자신을 보다 입체적,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로 한 朝鮮後期 印章文化에 대한 일고찰-17 · 18세기 서울 · 近畿 私印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21 참조.

Ⅴ. 맺음말

본고는 단편적으로 제시된 우평 황인로의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문인으로서 황인로를 조명하고, 그가 남긴 저서에 대해 문헌학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저서 중 『팔연문』이라는 저서에 주목하여 말년에 어떠한 의도로 이 책을 저술했는지 살펴보았다. 19세기 초 영남 상주 지역에서 활동한 우평 황인로는 영남학파 남인이자, 입재 정종로의 문하에서 퇴계학파의 사상과 문학을 이어받은 문인이다. 당시 상주 지역 상산 문단을 대변하던 가문 중 하나인 장수 황씨가였던 그는 비록 포의로 살았지만, 옥동서원, 장암, 청월루 등에서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였다. 본고에서 살펴본 『팔연문』은 그의 이러한 정체성이 담겨 있는 책이다. 그는 衍文을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연문이 경전의 의미를 완전하게 해 주는 데 꼭 필요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온전히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부여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어릴 적 품부 받았던 본성, 가문에서 대대로 관리하고 시회를 일삼던 공간, 처사로서 삶에 대한 태도, 자신의 애호와 아취' 등을 이 책에 담았다. 그가 『팔연문』에 담은 것들은 결국 그의 정체성이며, 우평 황인로라는 한 사람을 설명해주기에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것들이다. 황인로의 『팔연문』 저술 의도는 '연문'이라는 표현을 빌어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입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전하고자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우평 황인로를 『팔연문』 중심으로 살펴본 탓에, 문집 『우평유고』에 대해서는 이본 검토만 진행되었고, 문집 내 詩文을 활용한 경우는 일부 작품에 한정되었다. 또, 퇴계 학맥으로서의 주목은 사승 관계를 포함한 일부 기록에 의존하여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하여 황인로의 학문, 문학적인 면모를 입체적으로 고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팔연문』은 우평 황인로가 자신의 아취와 문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9세기 영남지역에서 활동한 남인이자 장수 황씨가 문인임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서책이라는 점 자체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황만선이 필사함으로써 영남지역 문인들의 미수전 애호, 전서 학습의 다양한 사례 등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

이 글은 퇴계 학맥을 잇는 영남 남인 우평 황인로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전반적으로 『팔연문』의 소개에 집중하여 작가에 대한 입체적인

조망이 부족하나, 상주 지역 장수 황씨 중심의 시회 공간, 상주 지역 퇴계 학맥의 인적 관계, 영남 남인의 인장 및 서화 애호의 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4.02.10 심사일: 2024.03.04 게재확정일: 2024.03.28

참고문헌

姜世晃,『過庵集』, 경기대학교 도서관 소장(K122838)
金振興,『篆大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한古朝41-26)
金振興,『篆海心經』,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위창古443-6)
許傳,『性齋集』, 한국문집총간 308~309
李敦禹,『肯庵先生文集』,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李東沆,『遲菴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한古朝44-가27)
李象靖,『大山集』, 한국문집총간 226~227
鄭象觀,『谷口園記』, 尙州: 谷口園記刊役所, 1928
鄭宗魯,『立齋集』, 한국문집총간 253~254
黃蘭善,『是廬集』,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黃蟠老,『白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속 109
_____,『先府君遺稿(雨坪遺稿)』, 연세대학교 소장(00040302667, 00040302119)
_____,『雨坪子文集』, 영남대학교 소장(Y0772605~8)
_____,『雨坪遺稿』, 계명대학교 소장(A171285~7)
黃麟老; 黃萬善『八衍文』, 계명대학교 소장
黃翼再,『華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속 64

권태을,『尙州漢文學』, 尙州文化院, 2001
_____,『漢文學硏究-尙州地域을 中心으로』, 文昌社, 2005
대산이상정선생기념사업회,『大山 李象靖 先生의 學問과 思想: 大山先生 誕辰 300周年 紀念論文集』, 大山 李象靖 先生 紀念事業會, 2011
방현아,『지원 강세륜의 삶과 시문학: 국포 강박과 남인시맥을 이은 18~19세기 문인 芝園 강세륜의 한시와 상주지역 시사 연구』, 학자원, 2023
윤재환,『조선후기 근기 남인 시맥의 형성과 전개』, 문예원, 2012
이상익,『韓國性理學史論』, 심산출판사, 2020
이상정 저 · 안유경 역,『'敬'이란 무엇인가: 이상정의『敬齋箴集說』譯註』, 明文堂, 2021
우인수,『조선후기 영남 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장수황씨대종회,『장수황씨세보』, 長水黃氏大宗會, 2000
정민,『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권진호,「사미헌 장복추의 학문활동과 산문세계」,『어문논총』45,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김명희,「松溪 金振興(1621~?)의 篆書 淵源에 관한 소고」,『서예학연구』14, 한국서예학회,

2009
김순한,「18세기 후반 상주 玉洞書院 청액활동과 사액의 의미」,『민족문화논총』7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_____,「조선후기 상주 白玉洞影堂의 운영과 陞院」,『민족문화논총』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_____,「18~19세기 상주지역 남인 세력의 갈등상-상주 옥동서원의 位次是非를 중심으로」,『민족문화논총』8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김지은,「정재 류치명의 문인록과 문인집단의 분석」,『조선시대사학보』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박철상,「미수전과 朗善君의 藏書印」,『문헌과 해석』19, 문헌과 해석사, 2002
_____,「조선후기 문인들의 印章에 대한 인식의 일면」,『한문교육논집』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송석현,「조선시대 상주지역 서원의 동향」,『민족문화논총』8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심경호,「18세기 중·말엽의 남인 문단」,『국문학연구』1, 국문학회, 1997
이구의,「淸越樓 吟詠詩에 나타난 자아와 세계의 만남」,『동아인문학』52, 동아인문학회, 2020
정우락,「입재 정종로 문학의 공간 감성과 그 구성 방식」,『영남학』7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정재훈,「18세기 경상도 사대부의 금강산 여행과 그 특징상—李東沆의『海山錄』을 중심으로」,『영남학』7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허권주,「四未軒 張福樞의 학통과 영남 儒林에서의 위상에 대한 연구」,『어문논총』30,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황만기,「화재 황익재의 삶과 학문경향」,『한문학논집』51, 근역한문학회, 2018

A Study on Woopyong Hwang In-ro's “Palyeonmun”

Kim, Won-kyung

Woopyong Hwang In-ro (1785~1830) is a scholar and poet of 18-19th century. His most activities took place in Yeongnam region and thus he is the member of Yeongnam School, under Ipjae Jeong Jong-roh. He was recognized as ‘The Best Three Yeongnam Writers’, and his writings were based on Classical style of Six Cannons(六經古文) and Hundred Schools(百家). He left *Woopyong-Yugo* and *Palyeonmun*.

Palyeonmun is a book of eight ‘surpluses(衍文)’ he chose from his writings or life itself. Hwang took the reference from Kim Jin-heung’s *Jeondaehak*, and transcribed them in the seal script(篆書體). Unfortunately the manuscript originally written by Hwang is no longer extant, but a elaborate copy, by his eldest son Hwang Man-seon, is currently in the collection of Kyemyeong University. Hwang Man-seon transcribed this book into seal script of Misu(眉叟篆). As appendix, there are comparisons and analyses of the script styles(字體) of Kim Jin-heung, Misu Heo Mok, or from classical texts. In the postscript there is a record indicating that this book is granted to younger brother Hwang Nan-seon in 1853. The eight subjects defined as ‘surplus’ by Hwang In-ro includes "Dongjam", "Gyeongok", "Oosong", reading his own fortune by dividing characters of last and first name(析字), transcribing *Palyeonmun* in seal script, writing the preface for *Palyeonmun*, putting title as *Palyeonmun*, and Hwang In-ro himself. The contents are not just ‘surplus’ but the description of Hwang In-ro's identity, such as inherent virtues, space for poetic meeting in family, attitude as a outside scholar, addict and elegance preference.

Key Words : Woopyong, Hwang In-ro, *Woopyong-Yugo*, *Palyeonmun*, ‘surplus’, The Best Three Yeongnam Writers